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왼쪽)과 김도영이 20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 시동을 걸었다. 나성범은 3타수 1안타, 김도영은 3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랜 기다림 끝에… 나성범·김도영이 돌아온다

퓨처스 리그 롯데전에 출전
김도영 3루타·나성범 안타 기록
김도영 "주루에 신경쓰여 조심"
나성범 "통증 없어 빨리 적응할 것"

'해결사' 나성범과 '키플레이어' 김도영이 복귀 시동을 걸었다.

KIA타이거즈의나성범과 김도영이 20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를 통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나성범에게는 올 시즌 첫 경기. WBC 대표팀에서 종아리 근육 부상을 입었던 나성범은 올 시즌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재활을 이어왔다.

시범경기에서 맹활약했던 김도영은 개막 두 번째 경기였던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자리를 비웠다.

두 선수는 20일 나란히 퓨처스 리그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결과도 좋았다.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부터 좌중간 2루타를 날렸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6회 볼넷으로 출루해 득점도 올렸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키 넘는 타구로 3루까지 향한 뒤 송구 실책이 나온 사이 홈에 들어왔다.

김도영의 기록은 3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

3번 타자 겸 지명타자에 자리한 나성범은 조심스럽게 첫 실전에 임했다.

첫 타석에서 3볼 상황에서 방망이를 휘둘러 1루수 플라이로 아웃됐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초구에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실력을 발휘했다.

나성범은 중견수 앞으로 공을 보내 중전 안타를 만들었고, 김석환의 홈런 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도 남겼다.

첫 술을 잘 떴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두 사람이다. 결과 보다는 '몸상태'라는 과정에 집중해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도영은 "기록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몸은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이었으면 3루랑 다 돌았을 때 호흡만 가빠졌는데 오늘은 다리가 떨리기도 했다"며 "올해 초 좋았던 타격을 생각하면서 경기에 들어갔고, 발을 다쳤기 때문에 주루할 때는 신경 쓰였다. 아직 불안한 느낌은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범도 "감이 아직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경기 감각이 좀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한 경기, 한 타석만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안전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부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통증은 없다. 적응해가면서 불안감을 없애면 100% 좋았을 때처럼 뛸 수 있을 것이다"고 첫 실전 소감을 밝혔다.

시즌 개막 후 봄이 지나고 벌써 여름이 왔다. 공백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다.

김도영은 "부상 초반에는 공부하겠다면서 야구를 봤는데 재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경기를 보고 싶지 않기도 했었다. 복귀해서 뛰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 했다"며 "이번 부상으로 느낀 게 많다. 성숙해졌고,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준비하면서 티배팅 할 때 시합전 루틴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위치,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까 복귀하면 주어진 대로 역할을 다하겠다. 항상 생각한 게 '수비에서 안정감을 두자'라는 것이다. 타격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은 없다. 지금 타격 폼으로 은퇴할 때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좋은 부분을 1군 갈 때 가져가겠다"며 '수비'에 초점을 맞춰 복귀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김도영은 "팬들이 위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다. 내가할 수 있는 것은 내 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빨리 복귀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나성범은 "근육과 근막을 다쳤는데 예민한 부분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멘탈이 깨질 뻔했다"며 "경기 많이 봤는데 1점 차 상황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물론 내가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TV로 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도 그렇고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치열해진 외야 경쟁을 보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던 나성범은 재활기간 KIA 선수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나성범은 "(이우성은) 원래 잘했던 선수인데 잠재력이 안 터졌던 것이다. 가진 게 많은 선수다. 잘하고 있어서 내가 가서 뛸 수 있을까 걱정된다. 경쟁을 해야 한다(웃음). 뎁스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주전들이 빠졌을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서 팀 성적이 좌우된다"며 "재활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여기 후배들 다 알게 됐다. 2군에 어떤 선수들 있는지 몰랐는데 몰랐던 후배들하고 더 가까워 졌다. 그래도 여기 오는 게 안 좋은 것이다.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하다. 아프지 않으면 끝날 때 성적은 어떻게든 나온다. 아프면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도움이 될지 안 될 지 모르겠지만 복귀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진영 158주간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 기록과 동률

고진영(사진)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최장기간 1위 타이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20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최근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고진영은 통산 158주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해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보유한 역대 최장기간 세계 랭킹 1위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은 2006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초아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 넘게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 158주간 1위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 4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된 고진영은 이후 1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기를 몇 차례 반복하며 158주를 채웠다.

고진영의 연속 최장기간 1위 기록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주다.

다만 고진영이 1위였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9주간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이 코로나19 때문에 동결된 기간이 있었는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20일에 이 기간을 합산해 "고진영이 총 158주간 세계 1위를 유지해 오초아의 기록과 같아졌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랭킹 동결 기간을 제외할 경우 고진영의 세계 1위 기간은 149주가 된다. 당시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세계 랭킹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고진영이 다음 주에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면 159주간 세계 1위가 되면서 오초아의 기록을 추월한다.

고진영과 오초아 다음으로는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125주간 1위를 유지했다.

100주 이상 1위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 고 외에 쩡야니(대만·109주), 박인비(106주)까지 5명이다.

연속으로 최장기간 1위 기록은 오초아가 158주 연속, 쩡야니가 109주 연속 1위를 유지했고, 고진영의 100주 연속이 그다음 기록이다.

고진영은 올해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5월 파운더스컵 등 L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투어 통산으로는 15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음바페, 그리스전 결승골 시즌 54호 골

소속팀·국대경기 포함 프랑스 선수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사진)가 소속 팀과 국가대표 경기를 합쳐 프랑스 축구 선수의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을 세웠다.

음바페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 B조 4차전 그리스와 경기에서 결승 골을 터뜨려 프랑스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10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어 승부를 갈랐다.

이로써 음바페는 이번 시즌 소속 클럽과 대표팀에서 총 54득점을 올려 1958년 쥐스트 퐁텐이 세운 프랑스 선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53골)을 새로 썼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소속 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 29골을 포함해 총 41골을 터뜨렸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13골을 추가했다.

이날 음바페는 자신의 70번째 A매치에서 통산 40호 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에서 4승을 기록한 프랑스는 승점 12로 B조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2승 1패의 그리스다.

유로 2024 본선에는 10개 조 2위까지 20개 팀이 진출하고, 남은 4장의 본선 티켓은 별도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주인을 정한다.

C조 잉글랜드도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골 잔치'를 벌이며 7-0으로 대승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이 두 골을 넣었고, 부카요 사카(아스널)는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역시 4승으로 C조 1위에 오른 잉글랜드는 2위 우크라이나(2승 1패)와 승점 차를 6으로 유지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몰타를 1-0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연봉 421억 줄게 사우디 오라"

알이티하드서 영입 제의
842억 이적 보너스 준비

손흥민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축구 스타들을 모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도 연봉 4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 매체 ESPN은 20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000만유로(약 421억원)씩 받은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우디 측은 손흥민이 알이티하드로 합류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알이티하드는 손흥민의 이적을 위해 6000만유로(약 842억원)에 보너스까지 준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알이티하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카림 벤제마가 이적한 팀으로, 2022-2023시즌 리그 우승을 일궜다.

첼시(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은골로 캉테 역시 이 팀으로 이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SPN은 "토트넘(잉글랜드)은 관심이 없어 사우디 측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까지"라고 전했다.

앞서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된 손흥민이 2024년 여름 사우디로 갈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결별하고 알나스르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슈퍼스타들의 사우디행 이적설이 이어진다.

리오넬 메시 영입을 노렸던 알힐랄은 바르셀로나(스페인)의 레전드인 세르히오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의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에게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영국 더타임스 등은 토트넘의 노장 골키퍼 위고 요리스, 리버풀(잉글랜드)과 결별한 호베르투 피르미누도 사우디 클럽의 영입 제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우디는 연간 리그 수익을 현재 1600억원가량 수준에서 2030년에 약 6300억원 규모로 키우길 원한다.

더불어 리그 자체의 시장 가치도 현재 1조원가량에서 2030년 2조8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사우디판 '축구굴기'는 국가 경제에서 석유 산업 비중을 낮추는 게 골자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